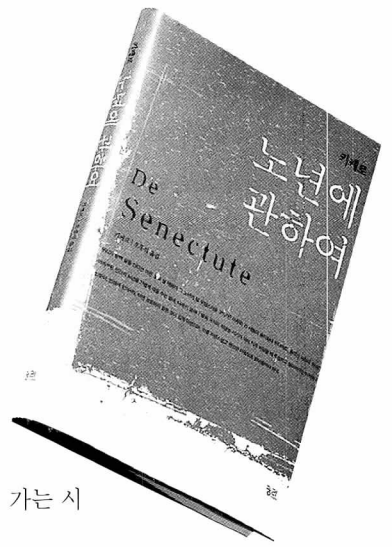


대 철학자가 예찬한 노년의 성숙과 지혜

《노년에 관하여》



키케로 지음 | 오홍식 옮김
공리/A5변형/176면/10,000원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미증유의 사건이자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소년기를 일컫는 '질풍노도의 시기'나 '심리적 이유기'처럼 노년을 지칭하는 명칭은 아직 없다. 이는 노년을 맞는 개인의 몸과 마음에 편차가 커 일반적인 설명을 다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 이상하게도 나이 든다는 것에는 간접경험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뛰어난 관찰력도 상상력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 나이들은 나이가 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다. 나이들과 노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선 나이 들어보니 이견 이렇게 다르고 저건 생각과 달리 별 다른 게 없다는 등 노인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노년은 원숙함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우리보다 2천년을 먼저 산 키케로는 이를 간파한 듯하다. 젊은이들은 물론 노년층도 쉽게 느끼게 되는 노년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조목조목 자세한 설명으로 날려버린다. 《노년에 관하여》(오홍식, 공리)는 키케로가 62세 때 쓴 작품으로 죽마고우인 아이티쿠스에게 헌정했다. 키케로는 〈헌정사〉에서 “노년이라는 공동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썼고, “이 책의 저술이 너무나도 유쾌한 것이어서 노년의 모든 골칫거리를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을 부드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었을 정도”라고 말한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이다. 대 정치가 카토, 막역지우인 라일리우스와 소(小) 스키피오. 키케로보다 1백여년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다. 키케로는 30대 젊은이인 라일리우스와 소 스키피오를 부추겨 노년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청하게 하고, 그 답을 현명하고 명망 있는 80대의 카토에게 부탁한다. 키케로는 이들의 입을 빌려 노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풀어놓는다.

키케로는 노년이 불행하게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노년이 불행한지 살핀다. 그리고 각 주제마다 경구를 하나씩 제시한다. 먼저 ‘노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것인가? 젊은이의 체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되묻는다. 몸은 쇠약하다 해도 원숙함으로 수행하는,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로’들의 활약을 상기시키며 노년이 되면 몸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게 된다

고 설명한다. “성급함은 피어나는 시기에 속하며 신중함은 늙어 가는 시기에 속한다”는 경구를 던진다.

둘째, ‘노년이 되면 체력이 약해진다’는 것에 대해 체력의 쇠퇴는 노년 때문이라기보다는 젊은 시절의 방탕에서 초래된다고 한다. 걱정적이며 무절제한 청년기가 노년에게 쇠약해진 육체를 건네준다는 것이다. 또 힘은 절제해야 하고 지닌 만큼의 힘에 의지하면 힘에 대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유년기의 연약함, 청년기의 격렬함, 중년기의 장중함, 노년기의 원숙함은 각 시기에 거두어져야만 하는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다”는 두번째 경구를 내놓는다.

셋째, ‘노년이 되면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젊은 시절의 가장 사악한 면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진다면, 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노년의 은총인가!” 하고 말한다. 노년이 쾌락을 거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노년에 대한 비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거리라는 설명이다. 셋째 경구는 “우리가 이성과 지혜로 쾌락을 거부할 수 없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년에 대해 대단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이다.

넷째, ‘노년이 되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에 대해 죽음은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임을 일깨운다. 젊은이가 죽는 것은 불이 물에 제압당하는 것과 같지만, 노인의 죽음은 저절로 연소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며 젊은이는 생명을 뺏기는 것이지만, 노인은 성숙함이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년의 결실은 앞서 이루어놓은 좋은 것들에 대한 풍부한 기억이다”는 게 마지막 경구다.

“언변으로 방어해야만 하는 노년은 불행하다”

키케로는 노년을 찬양한다. 젊은 시기를 탄탄하게 다진 사람들의 노년을 소 리 높여 칭송한다. 그는 노년이 익숙하진 않지만 어디선가 난데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지금, 그의 말에 더욱 힘이 실린다.

“언변으로 방어해야만 하는 노년은 불행하다.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이 갑자기 그 힘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예롭게 지냈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영향력이라는 마지막 열매들을 거둔다.”
—차정신기자